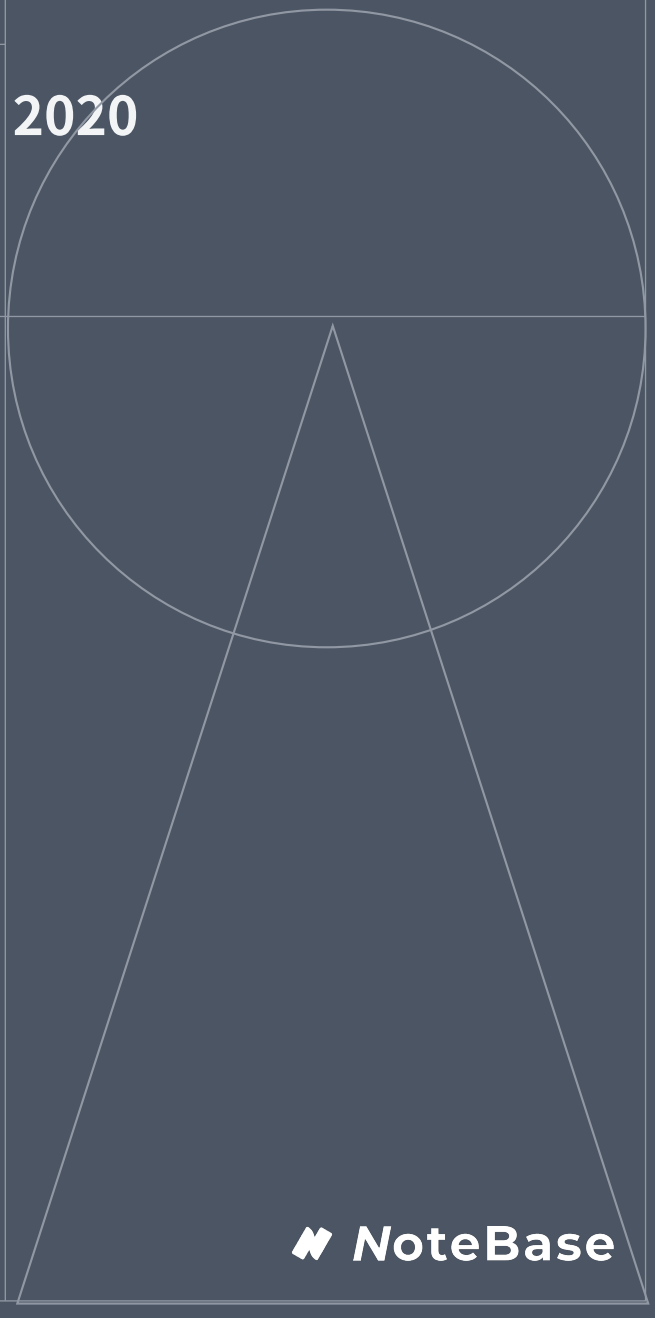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0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0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형부터 먼저 해라.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③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뿐더러'는 앞의 사실에 다른 사실을 보태는 **추가**의 뜻을, '무척'은 상태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두 표현은 뜻이 달라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NoteBase

공통 해설

의미의 중복은 한 표현에 이미 포함된 뜻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나타내는 것이다. 지문의 '피해를 당하다'에서는 '피(被)'에 들어 있는 '당하다'의 뜻이 뒤의 '당하다'와 겹친다. 이와 같이 밑줄 친 두 표현이 **같은 의미를 거듭 나타내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부터 먼저 해라.'에서 '부터'는 여럿 가운데 앞세우는 대상을 나타내고, '먼저'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순서를 나타내므로 뜻이 겹친다.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에서 '오로지'와 '만'은 모두 다른 것을 제외하고 빵으로 **대상을 한정**하므로 뜻이 겹친다.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에서 '마다'는 모든 발언자를 하나하나 가리키고, '각각'도 하나하나를 따로 가리키므로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뜻**이 겹친다.

반면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에서 '뿐더러'는 예의가 바르다는 사실에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무척'은 부지런한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하나는 두 사실을 이어 더하고 다른 하나는 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므로, 의미 중복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 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장: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김 대리: 박 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해 달라셨어요.
이 부장: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시다.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 부장은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대화했다고 말하여, 늦은 김 대리가 느낄 **미안함과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지각을 탓하는 대신 기다림이 불편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 일치하는 부분을 부각하는 방식이다. 이 대화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없다**. 밑줄 친 말은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 김 대리의 미안함을 덜어 주는 표현이다.

② O: 김 대리는 늦은 것을 사과하고 있다. 이 부장은 '괜찮아요'라고 한 뒤, 최 대리와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이는 기다림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달하여, 김 대리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 것이다.

③ X: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양보하는 방식이다. 이 부장의 말은 자신의 이익을 줄이거나 양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자신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 목적은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④ X: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줄이고 칭찬을 늘리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부장은 김 대리의 인품이나 행동을 칭찬하지 않는다. 최 대리와 즐겁게 대화했다는 말은 **늦은 김 대리를 안심시키는 표현**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NoteBase

문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인 정보 유출로 성인 광고 문자를 받는 일은 **정보 보호와 유해 정보 노출**의 문제이다.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터넷 중독의 현황이나 해결**을 직접 보여 주는 사례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인 정보 유출로 성인 광고 문자가 발송된 사건은 개인 정보 관리와 유해 정보 노출에 관한 사례이다. 청소년이 광고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 상태**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글의 주제에 맞추려면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처럼 중독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② O: 선지에서 제시한 통계는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주므로 **중독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해마다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O: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는 선지에서 제시한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중독이 청소년의 대인 관계와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드러내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O: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는 자료이다. 중독 상담이라는 해결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지원을 보완할 필요성으로 논의를 이어 갈 수 있으므로 글의 주제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재된다.
③ 예산을 대충 걷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하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음**을 나타낸다. 나름대로 애써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문맥에 맞는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하노라고'는 '하다'의 어간 '하-'에 연결 어미 '-노라고'가 붙은 말로,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나름대로 애써 했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뜻이므로 쓰임이 알맞다. '-느라고'는 앞의 행동이 뒤의 상황에 대한 원인이 됨을 나타내므로 구별한다.

② X: 물품 대금을 예치금에서 지급하여 거래를 마무리하는 상황이므로 **'결제된다'**로 고쳐야 한다. '결제'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이고, '결재'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일이다.

③ X: 예산의 액수를 대강 짐작하여 헤아린다는 뜻이므로 **'겉잡아서'**로 고쳐야 한다.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는 것이고,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를 붙들어 잡거나 마음을 진정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④ X: 행운을 기원하는 말로 치사를 대신한다는 뜻이므로 **'갈음합니다'**로 고쳐야 한다.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이고, '가름하다'는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 되게 하거나 승부·등수 등을 정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어 간 후에야 똬리 끈 입에 물고 삽짝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꽝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②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웃 간의 배려는 물을 긷는 **순번을 지키고 양보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미나리가 푸르고'와 '구린내 훅 풍겼지요'는 각각 시각과 후각을 나타내지만,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공감각적 이미지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네 집은 하나의 샘에서 물을 길으며, 새벽의 맑은 물을 돌아가며 길어 먹는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순번을 양보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동으로 이용하는 샘**을 중심으로 이웃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② O: '한 길이었습니다', '길어 먹었지요',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등 **과거 시제의 표현**으로 예전 샘가의 생활을 들려준다. 이를 통해 화자가 지나간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는 회상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③ X: 공감각적 이미지는 한 감각의 인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는 것이다. '미나리가 푸르고'는 시각적 이미지이고, '구린내 훅 풍겼지요'는 후각적 이미지이다. 두 감각이 각각 제시되었을 뿐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 간의 배려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맑은 물을 돌아가며 긷고 사정이 있는 집에 순번을 양보하는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

④ O: '들을 수 있었지요', '길어 먹었지요', '했었구요'와 같은 **말을 건네는 듯한 구어체**를 사용했다. 이러한 말투가 이웃들이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던 이야기를 친근하게 전달하여 정감 어린 분위기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쳐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동물은 먹이를 얻으려고 땅을 파거나 대상을 추적하며, 인간도 더 잘 살기 위해 주변 환경을 바꾼다. 글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생명체가 환경에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고 주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생명체의 생존 방식을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제시한 뒤, 그 설명이 환경 개변의 능동성을 놓친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진술만으로는 글의 강조점을 담지 못한다. 중심 주장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② X: 글은 생존을 위한 행동뿐 아니라 인간이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적극성까지 설명한다. 따라서 삶의 기술을 생존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글의 초점은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을 변형하는 능동성**에 있다.

③ O: 첫째 문단에서는 동물들이 먹이를 얻으려고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는 행동을 들어 환경 변형의 능동성을 설명한다. 둘째 문단에서는 인간 역시 더 잘 살기 위해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는 진술은 **동물과 인간에 공통된 특성**을 담아 두 문단을 포괄한다.

④ X: '잘 사는 것'은 글에서 제시한 인간의 세 가지 충동 중 하나이므로 지문과 관련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에 해당하며, 다른 생명체까지 다룬 글 전체의 주장은 아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만을 제시하기보다 생명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확장해야 한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쉴 생각이다.

③ 일에 서툰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머물다'는 '머무르다'의 준말이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었-' 앞에서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머무르다'를 르 불규칙으로 활용한 **'머물렀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머물다'와 '머무르다'는 모두 표준어이지만, 준말 '머물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할 수 없다. 과거를 나타내는 '-었-'이 붙을 때에는 본말 '머무르다'를 써야 한다. '머무르-'에 '-었-'이 결합하면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므로, '머물었다'를 **'머물렀다'**로 고친다.

② O: '머무르면서'는 본말의 어간 '머무르-'에 연결 어미 '-면서'가 결합한 형태이다. 르 불규칙 활용은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면서'** 앞에서는 어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O: '서툴다'는 '서투르다'의 준말로 인정되는 표준어이다. 어간 '서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여 '서툰'이 된다. 본말을 활용한 '서투른'도 쓸 수 있다.

④ O: '서투르므로'는 어간 '서투르-'에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므로'가 결합한 형태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므로'** 앞에서는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서투르-'를 그대로 유지한다.

NoteBase

문 8.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① 兎死狗烹
② 捲土重來
③ 手不釋卷
④ 我田引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사가 경쟁사에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점은 **실패나 패배 뒤에 힘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남**을 뜻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권토중래(捲土重來)'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는 말로, **한 번 실패하거나 패한 뒤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남**을 뜻한다.

A사가 B사에 업계 1위 자리를 내주었던 것은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고, 신제품의 성공으로 그 자리를 탈환한 것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핵심인 '잃었던 지위를 되찾으며 재기함'을 표현하는 한자성어가 권토중래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사진의 인화본은 조도를 조절하면 다른 인화본과 **서로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사례는 복제본도 원본과 다른 예술적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복제본과 원본의 **예술적 가치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본 고유의 속성은 복제본에서 느낄 수 없다는 통념을 비판하며, 복제본도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가치의 한계를 글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② X: 글에 제시된 사진과 회화의 차이는 원본과 복제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복제 기술의 발달로 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는 내용은 없다**. 글의 초점은 매체 간의 유사성이 아니라 복제본이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③ X: 마지막 문장은 사진에서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명시한다. 인화본의 조도를 낮추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제한적이다'를 '다양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글은 원본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을 제시한 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라고 반박한다. 이어 빌 브란트가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낮추었다면 다른 곳의 인화본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복제본도 원본과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遺棄하고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根絶되는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投棄하고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抛棄해야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투기(投棄)'는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린다는 뜻이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이므로 '버리고'를 '투기하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기(遺棄)'는 내다 버린다는 뜻으로, 사람이나 동물 등을 버리는 경우에 쓰인다. 이 문장의 '꿈을 버리다'는 이루려던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이므로 **'꿈을 포기(抛棄)하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근절(根絶)'은 나쁜 일이나 폐단 등을 뿌리째 없앤다는 뜻이다. 반려견을 버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므로 **'유기(遺棄)되는 반려견들'**로 고쳐야 한다.

③ O: '투기(投棄)'는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을 뜻한다. 쓰레기를 집 앞에 몰래 버리고 간 상황이므로 '쓰레기를 투기하고'는 원래 문맥의 의미와 맞는다.

④ X: '포기(抛棄)'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자신의 권리·자격 등을 내던져 버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습관을 버리다'는 **몸에 밴 나쁜 행동을 고치다**라는 의미이므로 '지각하는 습관을 고쳐야'로 풀어 쓸 수 있다. '습관을 포기해야'는 이 의미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꼽고'로 수정한다.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④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꼽혀지고'는 피동 표현이 겹친 말이지만, 문장의 주어인 '리셋 증후군'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 대상이므로 **'꼽히고'**로 고쳐야 한다. '꼽고'로 바꾸면 능동 표현이 되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꼽혀지고'는 '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꼽히다'에 다시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다만 주어 '리셋 증후군'은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대상이므로 **피동의 뜻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로 고친다. '꼽고'를 쓰려면 '전문가들이 리셋 증후군을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고 있다'처럼 분류하는 주체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② O: ㉡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국내에서 쓰이기 시작한 시기를 설명한다. 현재 위치에서는 환자들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문장들 사이에 용어의 유래가 끼어들어 흐름을 끊는다.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면 **용어 소개와 유래를 먼저 설명한 뒤 행동 특성을 이어서 서술**하게 되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③ O: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은 상대를 더는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칼로 무를 자르듯'**은 관계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끊는 모습을 드러내므로 이 문맥에 알맞다.

④ O: 앞 문장은 리셋 증후군을 쉽게 판별하고 진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뒤 문장은 예방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의 어려움을 근거로 뒤의 예방 필요성을 제시하므로 **이유와 결과를 잇는 '그러므로'**가 알맞다. '이와 같이'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나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이 관계를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姓은 楮이요, 이름은 白이요, 字는 無玷이다.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 채륜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로 꾸렸으므로 빛이 새하얗다. … (중략) … 성질이 본시 정결하여 武人은 좋아하지 않고 文士와 더불어 노니는데, 毛學士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① 대나무
② 백옥
③ 엽전
④ 종이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楮(저)'는 종이의 원료인 닥나무를 뜻한다. '毛學士(모학사)'는 붓을 가리키므로, 벗이 얼굴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붓으로 종이에 먹을 찍거나 글씨를 쓰는 모습**을 사람의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핵심 풀이

楮·白·無玷: 성인 '楮(저)'는 닥나무를 뜻하며, 닥나무 껍질은 종이를 만드는 원료이다. 이름인 '白(백)'은 희다는 뜻이고, 자인 '無玷(무점)'은 티나 흠이 없다는 뜻이다. 사물에 사람의 성·이름·자를 부여하면서 **종이의 원료와 깨끗한 흰 바탕**을 드러냈다.

文士·毛學士: 글을 짓는 사람인 '文士(문사)'와 어울린다는 설정은 종이가 글을 쓰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毛學士(모학사)'는 털로 만든 붓을 의인화한 존재이다. 그가 얼굴에 점을 찍어도 씻지 않는다는 대목은 **종이 위에 붓으로 먹을 묻혀 글씨를 남기는 일**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람처럼 묘사한 중심 사물은 종이이다.

후보 구별: 백옥도 흰빛을 띠지만, 닥나무를 원료로 하고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바탕이라는 단서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대나무나 엽전 역시 이러한 단서들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다. 흰색이라는 한 가지 속성보다 원료와 쓰임이 함께 종이에 대응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 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
연예 스캔들 소식	㉣

① ㉠: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④ ㉣: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새삼 돌아보다'는 이미 알던 일을 새로운 느낌으로 되짚는다는 뜻이므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이때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처럼 판단의 어려움을 드러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이다. '모쪼록'은 '아무쪼록'이라는 뜻이고, '원만히 해결되다'는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툼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무리로 적절하다.

② X: ㉡은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이다.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다'는 이미 알던 의미를 새로운 느낌으로 되짚는다는 뜻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처럼 고쳐야 기사의 성격에 맞는다.

③ O: ㉢은 사건이 터졌으나 아직 결과가 드러나기 전의 소식이다. '귀추'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그 결과**를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는 마무리가 적절하다.

④ O: ㉣은 연예 스캔들 소식이다. '호사가'는 남의 일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뜻이다. 연예 스캔들이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기사와 어울린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에서 —

①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군.
② 샌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군.
③ 말뚝이가 굿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군.
④ 도련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샌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는 말을 하기 직전에 '음악과 춤 멈춘다'라는 지시가 나온다. 따라서 풍자하는 사설은 **굿거리장단이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말뚝이는 '양반'을 '개잘량'의 '양' 자와 '개다리소반'의 '반' 자로 풀이하여 양반을 조롱한다. 이에 양반들이 '야아, 이놈, 뭐야아!'라고 외치는 것은 **조롱에 대한 꾸짖음**이다.

② O: 등장 장면의 지시문에 양반 삼 형제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등장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샌님과 서방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이 이를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다는 이해는 지문과 일치한다.

③ X: 말뚝이가 가운데로 나와 '쉬이'라고 한 뒤 '음악과 춤 멈춘다'라는 지시가 나온다. 그다음 '양반'을 '개잘량'과 '개다리소반'에 연결하는 풍자적 사설이 이어진다. 따라서 '굿거리장단에 맞춰'가 아니라 **음악과 춤이 멈춘 뒤**에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고 고쳐야 한다. 굿거리장단은 등장할 때 사용되며, 양반들이 '이 생원이라네'라고 합창한 뒤에 다시 춤을 춘다.

④ O: 등장 장면의 지시문에 도련님은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형들은 샌님과 서방님이므로, 도련님이 **두 형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다**는 설명은 지문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데나 쓴다.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일 내'의 '내'는 **일정한 범위의 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 '시일'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해도'와 '해도'는 각각 독립된 단어이므로 **'해도 해도'**로 띄어 쓴다. 같은 용언의 활용형을 반복한 표현이라고 해서 한 단어처럼 붙여 쓰지 않는다.

② O: '내'는 '일정한 범위의 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여기서는 '시일'이 나타내는 시간 범위 안이라는 뜻이므로 **'시일 내'**로 띄어 쓴다.

③ X: 여기서 '데'는 일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조사 '나'는 '데'에 붙이므로 '대접하는 데나'로 고친다.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어미 '-는데'와 구별해야 한다.

④ X: '밖에'는 '그것 말고는'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뒤의 부정 표현 '없다'와 호응하는 **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정공법밖에'로 고친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貨車)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멎고 그 서슬에 밑구멍으로 주르르 석탄 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 봐야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떼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볕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올올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껌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닿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잽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찐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에서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②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정답 3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아이들은 석탄을 안고 **낮은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따라서 철조망을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시설로 설명한 것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장의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에서 철길이 **도시를 남북으로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철도는 항만의 끝까지 이어져 있다.

② O: 아이들이 찾아간 제분 공장은 **항만의 북쪽 끝**에 있다. 또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라는 서술에서 저탄장이 철도 건너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X: 아이들은 신발주머니나 시멘트 부대에 석탄을 담아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철조망은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낮은 시설**로 제시된다.

④ O: 아이들이 선창의 간이음식점에 들어가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찐빵 등이 나온다. 여기서 노획량은 아이들이 가져온 석탄의 양을 뜻하며,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꾸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이어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쓰였다는 서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04년 1월 태국에서는 한 소년이 극심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소년의 폐는 완전히 망가져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이전까지 인간이 감염된 적이 없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년은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자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른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게 일어난다.
만약 집에 ㉠좀도둑이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만약 ㉡몽둥이를 들고 도둑과 싸우려 든다면 도둑은 ㉢강도로 돌변한다. 인체가 H5N1에 감염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으로 새가 아닌 다른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 결과 50%가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숙주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악명을 떨치면서도 조류 독감의 사망 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이 질병이 아직 사람 사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① ㉠: 면역계의 과민 반응
② ㉡: 계절 독감
③ ㉢: 치명적 바이러스
④ ㉣: 극심한 폐렴 증세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도둑이 저항을 받자 강도로 돌변하는 상황은, 침입한 바이러스가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격렬하게 싸워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상황에 대응한다. 따라서 ㉢ '강도'는 **치명적 바이러스**를 비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좀도둑'은 인체라는 집에 처음 침입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한다. 면역계의 과민 반응은 침입자 자체가 아니라, 침입자에 맞서는 인체의 지나친 대응이다.

② X: ㉡ '몽둥이'는 도둑을 강하게 공격하려는 수단이므로 **면역계의 과민 반응**에 대응한다. 지문에서 계절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점을 설명할 때 언급되며, 바이러스에 맞서는 인체의 반응을 뜻하지 않는다.

③ O: ㉢ '강도'는 집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싸우려 하자 더욱 거세게 저항하는 도둑이다. 이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우며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대응한다. 침입자가 상대의 강한 대응을 만나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관계가 같다.

④ X: ㉣ '승리의 대가'는 바이러스가 숙주와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치러야 하는 손실이다. 바로 뒤의 '숙주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설명에 따라, **숙주의 죽음으로 바이러스도 함께 죽는 것**을 뜻한다. 극심한 폐렴 증세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일으킨 피해이므로 바이러스 자신이 치르는 대가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ㄱ.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ㄴ.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ㄹ.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ㅁ.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

① ㄱ - ㄷ - ㅁ - ㄹ - ㄴ
② ㄱ - ㄹ - ㄷ - ㄴ - ㅁ
③ ㄹ - ㄴ - ㅁ - ㄱ - ㄷ
④ ㄹ - ㅁ - ㄴ - ㄷ - 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ㅁ은 앞서 제시된 초기 이주민들의 풍요로움을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 등 구체적인 환경**으로 설명한다. ㄴ의 '그러나'와 '그러한 분야'는 ㄹ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기업가 정신, 시장 경제에 관한 통념**을 반박하므로 두 문장은 이어져야 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ㄱ → ㄷ → ㅁ → ㄹ → ㄴ

ㄱ: 1700년대 중반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영국인들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다른 문장을 가리키는 표현 없이 글의 중심 화제인 미국의 높은 소득 수준을 소개하므로 첫머리에 놓인다.

ㄷ: ㄱ에서 제시한 **이주민들의 높은 평균 소득**을 이어받아 그 배경을 낙관성과 자신감에서 찾는다. 이어 '이후로도'라는 표현으로 초기의 높은 소득이 나중에도 증가했음을 덧붙인다.

ㅁ: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ㄱ과 ㄷ에서 다룬 이주민들의 높은 소득과 풍요로운 생활을 가리킨다.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을 제시하여 앞의 **'좋은 환경'을 구체화**한다.

ㄹ: ㅁ의 토지·자원·농산물 수출에 관한 내용을 **'농업적 환경'**으로 이어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화제를 옮기며, 미국인들이 그 원인을 과학·기술의 변화, 기업가 정신,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에서도 찾는다는 통념을 제시한다.

ㄴ: **'그러한 분야'**는 ㄹ에서 추가로 거론한 과학·기술, 기업가 정신, 시장 경제 등의 분야를 가리킨다. '그러나'를 통해 미국이 이 분야들에서 다른 산업 국가보다 특별히 우월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통념을 제시한 ㄹ 뒤에서 그 통념을 비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③ 사람에게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④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글은 정보의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수용 태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를 없애 준다고 했다. 또한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한다고 했으므로, **기존 신념과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② O: 조사 대상자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아냈지만,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는 **지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여 준다.

③ O: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한다고 했다. 이처럼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말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신념이 강화되므로,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④ X: 글에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는 근거가 없다.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가 마음의 휴식을 준다는 설명만으로, 새로운 정보가 불안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글에서 확인되는 특성은 **신념에 맞는 정보는 수용하고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유화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卵]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닷 되들이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 내다 버리게 했더니 소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덮어 주었다. 왕이 쪼개 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에서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온 아이와 ㉥에서 둔한 말을 잘 먹인 인물은 모두 **주몽**이다. '살찌게 했다'에서는 살이 찌는 말과 **그렇게 되도록 시킨 주몽**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행위의 주체는 해당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하게 하다'처럼 다른 대상에게 행동이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표현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주체**를 확인한다.

㉠ '몸을 피하면': 주체는 **유화**이다. 금와왕에게 갇힌 유화가 햇빛을 피해 몸을 움직이는 상황이다. 햇빛은 유화를 따라와 비추는 대상이다.

㉡ '내다 버리게 했더니': 주체는 **금와왕**이다. 앞 문장의 '왕이 그것을 버려서'에 이어 왕이 알을 길에 버리도록 시킨 것이다. 알을 직접 내다 버리는 사람과 그 일을 시킨 왕을 구별한다.

㉢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주체는 **주몽**이다. 문장의 '한 아이가'가 껍질을 깨고 나온 주체이며, 뒤에서 이 아이를 주몽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한다.

㉣ '활 잘 쏘는': 주체는 **활을 잘 쏘는 사람 일반**이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는 그 나라에서 '주몽'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쓰는지 설명한다. 여기의 '사람'은 특정한 아이 한 명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 '없애지 않는다면': 주체는 **금와왕**이다. 대소가 왕에게 주몽을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까 두렵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대소는 이 말을 하는 인물이고, 주몽은 없애려는 대상이며, 주몽을 없애라는 요구를 받는 인물은 왕이다.

㉥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주체는 **주몽**이다. 왕의 지시로 말을 기르는 주몽이 좋은 말은 적게 먹이고 둔한 말은 잘 먹인다. 살이 찌는 대상은 둔한 말이지만, 말을 먹여 살찌게 한 주체는 주몽이다.

행위의 주체가 주몽으로 같은 것은 ㉢과 ㉥이며, 이는 ③의 묶음에 해당한다.

NoteBase